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Kimin An 안기민 사도요한 (510) 562-3843 email : joannesan2011@gmail.com 사목회장 정일양 안드레아 (오일공)육칠이-삼구구육 email : iychung53@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오일공)팔사칠-삼공일사
---	--

미사	주일미사	11시 성당/온라인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수/목요일 오후 7시 30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성당/온라인)	금/토 오전 11시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신청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저녁8시 중회함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온라인	예비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향심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15분 온라인
	지속적인성체조배	일시 정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1시 반 온라인

< 연중 제 11주일 6월 13일 미사 전례 >

[제 1독서] 예제 17,22-24

[화 답 송]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 2독서] 2코린 5,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마르 4,26-34

전례 봉사						
	6월 15일(화)	6월 16일(수)	6월 17일(목)	6월 18일(금)	6월 19일(토)	연중 제12주일
미사해설	이명련 파트리샤	이은자 마트로나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김순희 클라라
독서	이명국 바오로	이기자 요안나	이선미 에스터	이경란 베로니카	이명란 아네스	이기만 베드로 이진외 안젤라
제의방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정진희 데레사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방송	천종욱 다니엘	정석준 요한	천종욱 다니엘	이덕용 안드레아	김상윤 안젤로 이상훈 베다	김재호 임마누엘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 예수성심성월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미사 후에 성체헌시와 성체강복이 있겠습니다.

◆ 환경생태 분과

사목회에 환경 생태 분과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고자 합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서두에서 교황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다며 비탄하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이 회칙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찬미받으소서」, 160항)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이 반포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지구는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실버반 주일미사는 6월 12일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 가정을 위한 특별기도/봉성체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을 위한 특별기도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사제관(510-562-3843)으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봉성체 신청도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가정 특별기도와 봉성체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목위원 위촉

부회장 : 김찬곤 안드레아, 전례분과 : 조관식 분도, 환경생태 분과 : 이은자 마트로나

◆ 6월 15일부터 본당 정상화

본당이 정상화됩니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모두가 지내왔습니다. 오늘날 까지 무사히 지내게 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참아주신 신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정상화에 따라,

1. 백신접종자는 미사 중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미백신접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손세정제는 모두 사용합니다.
2. 성당 내에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3. 모든 전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4. 주일 오전 8시 미사는 7월 4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 Father's day 6월 20일

Father's day에 아버지들에게 달아줄 꽃 작업을 6월 19일(토) 오후 2시에 청년회에서 합니다.

◆ 성서 40주간 종강

성서 40주간 구약 2 공부 6월 16일로 종강합니다. 6개월 동안 지도해주신 권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실 데레사, 김아레 카타리나, 박종영 요한, 이윤지 소피아.- **공동체 기도 지향**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 전에 기도 신청자를 위하여 주모경 한 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회(뜨락회/하모니회) 모임

오늘 주일 미사 후에 대건회관 쪽에서 있습니다.

◆ 요아킴/안나회 위로잔치

대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신 본당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 김문환 베드로 오일공-사공철-이오공이 - 음식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본당 청소

6월 19일(토) 오전 11시 30분부터 빗자루회 주관으로 본당 청소가 있겠습니다.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 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모임 안내

- * 사목회의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소망방
- * 구반장회의 : 매월 넷째 주일 미사 후 교육관 106호실
- * 성서 40주간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중
- * 꾸리아 :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저녁 8시 중
- *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카톡 모임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중
- * 울뜨레아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8시 중
- * 향심기도회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중 기도회
- * 성모회 : 매월 셋째 주일 저녁 8시 중
- * 모니카회 : 매월 첫째 주일 오전 9시 반 중

◆ 각 단체 **뱅크스테이트먼트** 찾아가세요.

◆ 감사합니다.

- * 성당청소해주신 빗자루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례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2차 헌금

6월 27일 : Holy Father (Peter's Pence)

☞ 새양/잃어버린 양 모시기를 위한 묵주기도

6월 12일 현재 집계 : 328, 157단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토니오(6/13) : 정태준, 김휘
- * 율리타/율리엠타(6/16) : 김정희, 신정열, 이인숙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교회의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회, 학교, 병원, 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7년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2020-2021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와 그다음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는, 조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천연두의 유행으로 어린이들이 죽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병을 퇴치할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도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과 백성을 위하여 물을 정화하는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은 고통과 환난에 시달리는 양 떼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도 그동안 생태계 안에 아로새겨진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자 ‘환경의 날’, ‘농민 주일’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등에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0년 5월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며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회개와 다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마태 28, 18-20 참조)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피조물들의 고통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지 못하였으며,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파멸로 치닫는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식 없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해 왔던 나날을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교구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와 단체에서 수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

이 칠후 같은 어둠의 시간에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소서.”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 우리의 정성

< 교무금 >

채성일(5-6) 이명국(6) 팽현팔(5-6) 김찬곤(5-6) 전문자(7)
김원조(4-6) 박영실(5-6) 천종욱(6)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김병희, 김원덕

< 빈첸시오 후원 > 유인웅, 박영실

* 황정숙 말미나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p>< 우리의 목표 ></p> <p>♡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p> <p>♡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p>
<p>< 실천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6/13(일)	연	이마르코(재상)	이골롬바(정연)		생	김요안나(만옥)	윤루카/루시아
	연	이마르코(재상)	윤루카/루시아		생	박베드로(진영)	박마리아(덕희)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박조앤 가정	박율리안나(경숙)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박라우렌시오	박율리안나(경숙)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박데레사(영실)	신율리엠타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6/15(화)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생	채토마스(성일)	채줄리아
	연	황마르코(문환)	황말찌나(정숙)		생	채토마스(성일)	채헬레나
	연	정미카엘	가족		생	박스콜라스티카(현숙)	익명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6/16(수)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김막시밀리안	황율리안나(정기)	6/17(목)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막시밀리안	김엘리사벳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연	이상남	채줄리아
	연	황프란치스코	가족		생	유리디아(윤미)	전수산나
	연	황프란치스코	김엘리사벳		생	김그레고리오(준호)	유리디아
	연	황프란치스코	옥체노베파		생	김크리스티나(관숙)	유리디아
	연	윤레오(기창)	윤루카/루시아	6/18(금)	연	정미카엘	가족
	연	박바오로(양준)	가족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최도밍고(근주)	최안드레아(용석)	6/19(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최헬레나(신경)	최안드레아(용석)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김제이슨	김케네스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요셉(건용)	윤루카/루시아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정다니엘	정데레사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이마리아/부모형제	윤사비나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연	김성환	부필로메나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링, 적금 (213) 368 - 9000</p>
<p>송 이 응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